

# 2

## 새로운 목록 원칙과 규칙 - ICP, ISBD, RDA를 중심으로 -

이 재 선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jslee@mail.nl.go.kr

# 목차

1. 서론
2. 새로운 국제목록원칙
  - 2.1 파리원칙(PP)
  - 2.2 국제목록원칙(ICP)
3. 새로운 목록규칙
  - 3.1 국제서지표준기술(ISBD)
  - 3.2 자원의 기술과 접근(RDA)
4. 결론

## 1. 서론

1961년 파리원칙이라는 국제목록원칙이 발표된 이래, 온라인목록과 인터넷의 등장, 정보기술 발전의 영향으로 목록의 모형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시도되어왔다. 이후 “서지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FRBR)”(1998), “전자데이터의 기능상의 요건(FRAD)”(2009), “국제목록원칙(ICP)”(2009)이 연속하여 발표되었다. 1997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목록의 미래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 이후, 영미권에서는 계속된 개정작업의 결과로 2008년 11월 영미목록규칙(AACR)의 새로운 개정판인 “자원의 기술과 접근(RDA)”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규칙은 다국적 목록규칙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제적인 일련의 이러한 개정의 흐름은 단지 기존의 목록규칙의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목록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기존의 목록원칙이 카드목록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새로운 원칙은 디지털환경에서 도서관 이외의 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에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새로운 국제목록원칙(ICP)과 국제표준기술(ISBD), 자원의 기술과 접근(RDA)에 관해 분석하여 변화의 축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새로운 국제목록원칙

### 2.1 파리원칙(PP)

우리가 말하는 파리원칙(Paris Principles: PP)이란, 1961년 10월 9일부터 18일까지 파리 유네스코 회의실에서 주요국의 목록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회의로 목록에 대한 주요 원칙이 합의됨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정식명칭은 국제목록원칙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 ICCP)이며, 국제도서관연맹(IFLA)의 주최 하에, 53개국의 대표와 12개 국제기관의 관계자, 회의 조직위원회 위원 등 총 105명이 참석하였으며, 이외에도 방청객으로 22개국 96명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 결과, 모두 9개의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첫 번째 결의안에 원칙규범(Statement of Principles)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결의안에서는 원칙규범을 도서관·출판사·서점 및 각국의 책임 있는 기관에 가능한 한 널리 알릴 것, 각국에서 목록규칙의 제·개정 작업 및 적용을 진행할 것, 국가서지 편찬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칙규범은 다음과 같이 12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 |                 |                      |
|-----------------|----------------------|
| 1. 저록작성원칙규범의 범위 | 9. 단체아래 저록           |
| 2. 목록의 기능       | 9.1-9.3 단체저자         |
| 3. 목록의 구조       | 9.4 단체저자에 대한 표목 형식   |
| 4. 저록의 종류       | 9.5 하위단체             |
| 5. 복수저록의 사용     | 10. 복수의 저자           |
| 6. 저록의 유형별 기능   | 11. 표제아래 저록이 작성되는 저작 |
| 7. 통일표목의 선정     | 12. 개인명에서의 올림말       |
| 8. 개인저자         |                      |

이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결의안으로 채택되었다.

- 채택안의 편집과 배포, 회의록 발간 등을 위해 회의조직위원회를 차년도 IFLA위원회 회의 까지 유지기로 하고, 이를 위해 IFLA 사무국의 지원을 요청한다.
- 국가기관들이 회의조직위원회와 계속 작업할 것을 제안한다.
- 해당 언어로 된 개인명에 대한 올림말에 관해 그 실재를 통일하는 관점에서 공통 언어의 사용을 권고한다.
- IFLA가 다른 국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특히, 일반적으로 대규모 도서관에서 전자 기계의 사용 및 기계처리 사용 목록규칙에 끼치는 영향 연구를 제안한다.
-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 추가 사항을 원칙규범의 부록으로 처리할 것을 고려한다.
- 서지 참조와 번자(翻字)에 관해 국제표준기구(ISO) 대표가 IFLA와 ISO 간의 긴밀한 연락을 재차 확인한다.
- 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목록원칙의 광범한 합의에 도달하였음을 기록한다.

이 회의에 대하여 테이트(Tait 1969)는 1960년 루베츠키가 작성한 CCR(Code of Cataloging Rules)이 미국의 목록작성 관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파리 원칙이 만장일치제를 택하여 어느 정도 비판을 잠재울 수도 있었지만 단체명의 경우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편의를 의해 기본저록의 표목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AACR에서의 단체명과 편집자에 대한 기본표목 채택의 단점에 대해 도마노프스키(Domanovsky 1973)의 지적 등으로 1974년과 1978년에 각각 기본표목으로 채택되는 것을 중지하게 되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원칙은 각국의 목록규칙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규범으로서 국제적인 합의를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록규칙에 대한 영향으로 보면, 이 원칙의 제2조 목록의 기능에서는 목록의 검색기능을 우선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서지단위를 중시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원칙규범 전반적으로는 저작단위를 우선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 목록의 기능

목록은 다음을 확인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여야 한다.

### 2.1 특정 문헌의 소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 (a) 그 문헌의 저자와 표제로
- (b) 저자가 해당 문헌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표제만으로
- (c) 저자와 표제가 식별 상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표제를 대체하는 적절한 대체 수단으로

### 2.2 (a) 특정 저자의 어떤 저작을 소장하고 있는가?

- (b) 특정 저작의 어떤 판을 소장하고 있는가?

이 원칙규범은 3항에서 12항까지 목록의 목적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저록의 종류와 형식에 대해 언급하였다. 원칙 2.1항이 단일 개별자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며, 원칙 2.2항은 저작단위를 고려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 중요한 개선은 1908년의 영미목록규칙과 1949년의 ALA 규칙에 대한 개인과 단체의 저자성에 대한 정의에 있다. 이 원칙규범의 말미에는 서지에서 사용되는 용어해설을 국제십진분류법의 분류기호순으로 열거하였는데, 여기에서 저자를 “저작을 작성하거나 또는 지적 내용이나 편집(arrangement), 형식(form)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인이나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저자성은 지적 책임의 여부를 강조하게 되었다(Tait 1969).

이러한 저자성에 대한 견해는 특히 유럽의 규칙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원칙 9.1에서 9.3항까지는 저자로서 단체명이 채택되어 영미목록의 관행에 근접하게 되었고 후에 다수의 국가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헝가리의 목록자 도마노프스키(Domanovszky)는 이러한 관행에 대해 반대하여, 지금까지 목록작성의 전통은 대부분의 경우, 단체에는 저자성 개념을 적용하지 않았고 저작에 개인저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저작의 표제에 창작자(originator)로서의 단체와 관련되어 있음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단체명으로 인한 목록작성의 곤란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베로나는 단체의 저자성에 대해 저작의 내용이 단체 자체가 활동한 결과라는 성격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경우, 단체에 저자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Verona 1975).

한편, 이 회의에서 굴은 그의 발표문을 통해 목록을 처리하는 데 따른 전자적인 환경과 자동화에서의 저자성 개념이 목록규칙에 끼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목록자는 인간의 능력에 맞는 목록규칙을 만들어야 하며, 그 규칙은 기술의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하고, 목록규칙이 형식보다는 자료 자체를 기초로 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새로운 기술의 원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지의 주장을 펼쳤다(Gull 1963). 이러한 주장은 당시 참가자들이 그가 주장한 ‘자동 환경에서의 저자성’(Automatic authorship)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였다면 원칙규범은

좀더 책자목록이나 카드목록이 갖는 한계성을 고려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 파리원칙은 탄생되었고, 이후 각국에서 이 원칙을 수용하여 목록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작업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 원칙은 참가자의 다수결에 의해 원칙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원칙의 타당성과 정확성에 대하여 검증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 사이 미국에서는 1967년 루베츠키가 초안을 작성한 영미목록규칙 초판(AACR1)이 발행된다. AACR1에서는 목록작성의 으뜸정보원을 표제면으로 하고 있지만 저자성의 선정은 표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표목을 삼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내용에 대해 “지적 책임”을 지는 개인이나 단체를 기본표목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영미목록규칙의 기본저록의 원칙은 저자성의 책임소재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 햄디(Hamdy 1973)는 목록자가 저자를 기본표목으로 선정하는 데 따른 불합리성을 지적하였다. 그는 제프리스(Jeffreys 1967)가 주장한 기술부분에서 저자는 항상 표제 다음에 기술되며, 그 다음에 다른 서지 사항들이 기술된다며 모든 표목은 동등하다는 것과 단위카드목록에 의한 표제를 기본저록의 표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햄디의 의견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더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독일목록규칙(Prussian Instructions)과 일본목록규칙이 이에 해당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국제표준서지기술(ISBD)에 따라 작성되는 단위목록은 서명단위의 저록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에 대한 개념은 AACR2(1978)와 AACR2R(1988)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AACR2R에서는 많은 도서관들이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을 구별하지 않음을 알고 ‘기본표목과 대체표목(alternative headings)’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총칙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2002년 개정판에도 계속되고 있다. 후에 웨젠베르크(Wajenberg 1989)는 루베츠키가 정의한 저자성도 문제가 있으며 저자성의 개념을 최근까지 가장 철저하고 엄밀하게 철학적으로 조사한 카펜터의 연구결과에서도 저자를 구별하는 일의 어려움과 사례를 들어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AACR 초판(AACR 1967, 343)에서 저자성은 저작의 지적 또는 예술적 내용에 대해 주된 책임성에 기초한다고 하였으나 1969년 루베츠키의 정의는 “저자란 단순히 말하면 저작의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지적 또는 예술적 내용”을 가졌든 안 가졌든 그리고 ‘그 내용의 창작에 대해 주로 책임을 지는’ 실제적인 누구이든 저작을 생산한 개인이다(루베츠키 1969, 장 26)라고 정의하여 저자성 개념이 비판을 받게 된다.

AACR1은 파리원칙을 수용하고 루베츠키의 이론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나 파리원칙을 완전하게 수용하면 이 규칙을 소급하여 적용할 경우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LC를 비롯한 조사연구도서관협회의 대형 도서관들이 압력을 가함으로써 파리원칙과 차이를 두고 있다. 편찬자였던 루베츠키는 사임하게 되고 스폴딩이 후임자로 임명되었다. AACR초판 중 파리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PP 10.3항은 편찬자의 지시 아래 생산된 저작은 표제를 기본표목으로 하도록 하였지만 표

제면에 기재된 편찬자를 기본표목으로 저록을 작성한다는 것을 각주에서 예외조항으로 처리하였다. AACR1은 권고된 원칙을 따르지 않고 각주에 있는 예외조항을 택하였다.

- PP 9.4항은 모든 단체명에 대해 장소 보다는 단체의 직접명을 표목으로 선정하도록 권고되어 있지만 북미판 AACR의 항목 98과 99에서 특정 단체에 대해 지명을 표목으로 유지하고 있다.

AACR1은 1967년 영국도서관협회에 의해 영국판이, 미국과 캐나다 도서관협회에 의해 북미판이 각각 동시에 발행되었다. 영국판은 북미판보다 더 파리원칙에 근접하였으나 파리원칙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았다.

파리원칙은 해석이 다양해지면서 그 적용을 논의하기 위해 1969년 국제목록전문가회의(International Meeting of Cataloguing Experts: IMCE)가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파리원칙에 대한 해설판 작성과 단체명표목에 관한 연구 추진을 결정하였다. 이후 1971년부터 1974년까지 IFLA의 Cataloguing Secretariat를 통해서 연구를 지원하게 되었고, 1974년부터는 세계서지제어(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UBC) 국제사무국에서 이를 담당해 왔다.

한편 파리원칙을 수용한 최초의 다국적 규칙으로 1978년 영미목록규칙(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이 발행되었다. 그 서문에는 '1961년의 파리원칙을 전면적으로 준수하고 유지'할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이를 계기로 영미목록규칙은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목록규칙이 되었다.

특히 1971년 이후 원칙의 제4항 즉, 저록의 종류(Kind of entry)와 관련하여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1977년 Names of persons 제3판이 발행되었고 1980년 보유판이 발행되었다. 1978년에는 저자명이 나타나지 않은 고전에 대한 Anonymous classics가 발행되는 등 파리원칙을 수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어졌다.

## 2.2 국제목록원칙(ICP)

국제목록원칙(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은 파리원칙이 시대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는 IFLA 목록분과위원이었던 러시아 국립도서관의 카스파로바(Natalia Kasparova)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이 제안에 따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에 걸쳐 대륙별로 "국제목록규칙에 관한 국제도서관연맹 목록전문가 회의(IME ICC: IFLA Meeting of Experts on an International Cataloguing Code)"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200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국립도서관에서 유럽 및 북미 32개국 54명이 참가, 2004년 아르헨티나 부에노

스아이레스 산안드레아대학에서 중남미지역 전문가 14개국 31명이 참가, 2005년 이집트 카이로 Pyramisa 호텔에서 중동 13개국 53명 참가, 2006년 서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2개국 44명이 참가, 2007년 남아공 프레토리아국립도서관에서 10개국 28명이 참가한 가운데 각각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2006년 회의에 19명이 참석하였다.

회의에 앞서 배포된 원칙의 준비(안)은 2003년 독일국립도서관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 앞서 바바리안주립도서관의 뮤니히(Monica Münichi)가 주축이 되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이 안을 기초로 토론을 거쳐 수정안을 작성하였다. 매회 회의 진행방식은 배경논문발표와 국가별보고, 워킹그룹회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워킹그룹은 5개의 세부주제에 따라, 개인명, 단체명, 연속성, 통일표제, 다권자료구조 그룹으로 나뉘었다.

제1그룹은 개인명에 대하여 공동의 전거과일을 작성하기 위한 의견일치를 목표로 하여 이름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나라에서 영미목록규칙에 의거하여 식별하는가, 레코드의 국제적인 공유를 위해 식별되지 않는 이름을 사용하는 데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 등에 대하여 논하였다.

제2그룹은 단체명에 대하여 단체를 식별하기 위한 개체의 일치와 최소한의 실제적인 제안을 목표로 하여, 단체명에 변경이 있는 경우 현행 규칙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단체에 대해 어떤 경우에 새 전거레코드를 작성할 것인가, 단체의 명칭이 변경전 또는 변경후의 이름에 대해 어떠한 것을 링크시킬 것인가를 논하였다.

제3그룹은 연속성에 대하여 표준에 관한 합의 및 새 레코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저작/표현형과 관련된 변경이 국제표준서지기술(ISBD) 계속자료용(CR: Continuing Resources)에 일치되지 않는 규칙의 유무 확인을 목표로 현재의 목록원칙과 실체가 ISBD(CR)과 일치하는가 아니라면 어떻게 왜 다른가, 원칙과 실체가 모두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제4그룹은 통일표제를 자료유형표시(GMD: General Material Designation)와 표현형 수준의 링크로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표현형 및 물리적 형식(format)의 형태(form) 수준에서 집중하도록 GMD에 의한 새로운 접근을 위한 실체와 제안의 일치(harmonization)를 목표로 하였다. 논의사항은 현재 GMD에 표현형의 형태와 구현형의 형식이 혼합된 용어가 있으니 GMD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서지레코드에 그러한 정보의 적절한 위치, 형태사항을 올바르게 나타내는지, 통일표제를 작성하는 경우와 통일표제의 집중 및 식별목적에 관한 합의, 통일표제의 구조에 관한 일관성 여부를 논하였다.

제5그룹은 다권자료/다부분자료의 구조에 대하여 서지적 공유의 극대화와 모든 저작을 식별하는 원칙의 준수를 목표로, 구현형에 담긴 개개 저작/표현형을 식별하기 위해 현행 규칙에서 내용주기, 저자/서명부출표목, 분출레코드의 이용에 있어 그것을 어떻게 왜 식별해야 하는지, 다양한 이용자 과업을 필요로 하는 전체/부분의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



였다.

매 회의마다 결과로 작성된 수정안은 해당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여 찬반투표를 거쳐 수정된 다음, 이전 회의에 참석하였던 전체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투표에 회부되어 매 회의마다 최종안이 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회의 최종안이 2009년 2월 완성되었으며 20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IFLA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다.<sup>1)</sup> 이 원칙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발행되어 있다.<sup>2)</sup>

서론에서 모든 유형의 자료에 대한 기술과 접근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임을 밝히고 있다. 이 새 원칙은 표목의 선정과 형식뿐만 아니라 접근(access)을 취급하고 있으며, 서지레코드뿐만 아니라 전거레코드도 취급하고 있다. 원칙은 세계의 위대한 목록의 전통과 FRBR, FRAD 및 앞으로 발표될 FRSAR의 개념모형을 토대로 작성되었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것들이 기초를 이룬다. 정보의 조직 및 제어된 접근(controlled access)과 서지적 관계(bibliographic relationship)를 제공하는 것에 기초를 둔 것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도 있다. 스페노니우스에 의하면 원칙은 서지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서지의 언어 설계를 위한 지시어라고 하였다. 원칙은 규칙을 위한 지침이며, 원칙의 목적은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내기를 바라는 바를 말한다. 예컨대, 이용자가 한 개인과 관련된 모든 자원을 발견하는 것을 돕는 일이며 규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정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으로 규칙제정자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서지의 세계가 복잡하지만 목록자는 메타데이터만큼이나 이해와 제공하기 쉬운 법이나 규칙이기를 원한다. 쉬운 규칙이 관용법, 충분성과 필요성, 경제성의 원칙은 자원을 식별하기 위한 정확한 데이터와 최소한의 필수요소를 제공함에 의해 이용자가 수행해야 할 과업을 만족시켜주기를 원한다. 또한 표현성과 관용법의 원칙은 자원 그 자체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를 반영하고, 자원 식별에 있어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목록자는 관련된 자원으로 경로를 네비게이트 할 수 있도록 이용자를 지원하는 데이터를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데이터는 일관성과 표준화를 기해야 하며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이 특별한 상황에서 서로 충돌할 것 같으면, 목록자는 지킬 수 있는 실제적인 해결책을 취해야 한다. 원칙을 규범으로 하는 것은 서지자원에 대한 기술과 접근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술하는 것에 대하여 목록자의 판단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ICP는 대상(object)을 언급하였는데, 특정 이용자의 과업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록의 기능을

---

1) IFLA Cataloguing Section and IFLA Meetings of Experts on an International Cataloguing Code. 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

〈<http://www.ifla.org/en/publications/statement-of-international-cataloguing-principles>〉.

2) IFLA Meetings of Experts on an International Cataloguing Code. 〈<http://www.ifla.org/en/node/576>〉.

말한다. 이러한 목적들은 FRBR에서 정의한 이용자과업 즉, 발견, 식별, 선정, 확보 위에, 이용자가 서지세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서지레코드와 전거데이터 사이를 네비게이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탐색(find)은 특정 개인과 관련된 모든 자원을 탐색하거나 특정 저작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식별(identify)은 개체를 기술하기 위해 충분한 데이터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동일 이름을 가진 개인을 구별하는 일이다. 식별을 위해 중요한 낱자를 추가할 수도 있다.

선정(select)은 이용자가 특정 유형의 내용(content)이나 특별한 수록매체, 말하자면 도서형태나 디지털 버전과 같은 것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자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확보(acquire 혹은 obtain)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용자가 디지털 버전을 사용하거나 보기 위해 개별자료를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 혹은 하나의 사본을 구입하거나 빌리는 것에 관한 정보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항해(navigate)는 데이터의 관계를 보이고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관련된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관련된 개인, 단체, 가족, 개념, 대상, 사건, 장소에 관한 정보로 옮겨가는 명확한 경로를 볼 수 있다.

제5항과 제6항은 서지기술과 접근점을 따르기 위한 규칙과 같은 것이다. 서지기술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을 따르라고 되어 있고 도서관에서는 IFLA의 ISBD를 따른다. 접근점에 대하여, 원칙을 기초로 접근점을 공식화하며, 전거형, 이형, 식별기호를 기록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전거형 접근점(authorized access point)”은, 우리가 전거형 표목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원저의 언어와 문자로 된 구현형에 기초한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여 접근점을 작성한다. 그러나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나 문자를 기초로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전거형 접근점은 가능하면 원어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다른 문자로 변환하려면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전거형 접근점으로서 사용될 어떤 이름을 선정하는 규칙과 관련이 있다. 기본적으로 구현형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이름이나 이용자에게 적합한 잘 알려진 이름을 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사실 목록실무의 측면에서 보면 이는 작성된 목록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단체에 대하여,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이름을 관련짓기 위해 링크되어야 한다. 이름을 배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체와 가장 관련 있는 나라나 언어의 용법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름 단의 구별이 필요한 경우, 식별을 위한 특성을 보기(補記)할 수 있다.

원칙규범의 마지막 7항은 탐색능력에 대한 것으로, 서지레코드에 대하여, 6개의 필수 접근점으로 1) 저작의 저작자나 첫 번째 저작자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 2) 본표제, 3) 발행년, 4) 저작

에 대한 제어형 주제어 혹은 분류기호, 5) 표준번호나 식별기호, 6) 등록표제(key title)'를 들고 있다. 전거레코드에 대해서는 필수접근점으로 전거형 이름 혹은 개체의 표제, 개체에 대한 식별기호, 개체에 대한 이형이름과 이름이나 표제의 형식을 기록한다. 부차적 접근점으로, 발행처, 내용유형, 수록매체유형으로, 서지레코드 및 전거레코드가 제시되어 있다. 일부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것을 필수요소로 취급하기도 한다.

이외에 디스플레이 되는 접근점과 데이터의 언어와 문자의 관계 기준에 따라 보다 바람직하게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편리한 논리적 순서로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 언급된 것이다.

ICP 초안과 최종안의 본문은 내용이 크게 변경되지는 않고 순서의 조정이 대부분이었다. 용어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파리원칙에서 사용한 용어 중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

파리원칙(PP)	국제목록원칙(ICP)
서지단위(bibliographical unit)	구현형(Manifestation)
표목(Heading)	전거형 접근점(Authorized access point), 제어형 접근점(Controlled access point) 등 접근점(Access point)으로
참조(Reference)	이형이름(Variant form of name)으로
통일표제(Uniform title)	전거형 접근점(Authorized access point), 전거형 이름의 형식(Authorized form of name), 이름(Name)

○ 주요 용어

채택된이름(Preferred name), 필수접근점(Essential access point), 부차적접근점(Additional access point), 전거형접근점(Authorized access point), 제어형 접근점(Controlled access point), 비제어형접근점(Uncontrolled access point)과 같은 용어들이 새로이 사용되었다.

〈표 1〉 파리원칙과 IME ICC 회의별 국제목록원칙(안)

파리원칙 (1961)	ICP 1 ~ ICP 3 (2003~2005)	ICP 4 (2006)	ICP 5 (2007)	ICP (2008. 4)	ICP (2008. 10)	ICP 최종 (2009. 2)
1. 적용범위 2. 목록의 기능 3. 목록의 구조 4. 저록의 종류 5. 복수저록의 사용 6. 저록의 유형별 기능 7. 동일포목의 선정 8. 단일 개인저자 9. 단체아래 저록 10. 복수의 저자성 11. 표제아래 저록이 작성되는 저작 개인명에서의 올림말	서언	서언	서언	서언	서언	서언
	1. 적용범위 2. 개체, 속성, 관계 2.1. 서지레코드에서의 개체 2.2. 진거레코드에서의 개체 2.3. 속성 2.4. 관계 3. 목록의 기능 3.1. 탐색 3.2. 식별 3.3. 선정 3.4. 입수 혹은 확보 3.5. 항해 4. 서지기술	1. 적용범위 2. 개체, 속성, 관계 2.1. 서지레코드에서의 개체 2.2. 진거레코드에서의 개체 2.3. 속성 2.4. 관계 3. 목록의 기능 3.1. 탐색 3.2. 식별 3.3. 선정 3.4. 입수 혹은 확보 3.5. 항해 4. 서지기술	1. 적용범위 2. 개체, 속성, 관계 2.1. 서지레코드에서의 개체 2.2. 진거레코드에서의 개체 2.3. 속성 2.4. 관계 3. 목록의 기능 3.1. 탐색 3.2. 식별 3.3. 선정 3.4. 입수 혹은 확보 3.5. 항해 4. 서지기술	0. 일반적인 목적 1. 적용범위 2. 개체, 속성, 관계 2.1. 서지레코드에서의 개체 2.2. 진거레코드에서의 개체 2.3. 속성 2.4. 관계 3. 목록의 기능 3.1. 탐색 3.2. 식별 3.3. 선정 3.4. 입수 혹은 확보 3.5. 항해 4. 서지기술	1. 적용범위 2. 일반원칙 3. 개체, 속성, 관계 3.1. 개체 3.2. 속성 3.3. 관계 4. 목록의 목적-기능 4.1. 탐색 4.2. 식별 4.3. 선정 4.4. 입수 혹은 확보 4.5. 항해	1. 적용범위 2. 일반원칙 3. 개체, 속성, 관계 3.1. 개체 3.2. 속성 3.3. 관계 4. 목록의 목적과 기능 4.1. 탐색 4.2. 식별 4.3. 선정 4.4. 입수 혹은 확보 4.5. 항해

5. 접근점 5.1. 개요 5.1.1. 접근점의 선정 5.1.2. 전거형 표목 5.1.3. 언어 5.2. 개인명의 형식 5.3. 가계명의 형식 5.4. 단체명의 형식 5.5. 통일표제의 형식	5. 접근점 5.1. 개요 5.1.1. 접근점의 선정 5.1.2. 전거표목의 이름 선정 5.1.3. 언어 5.2. 제어형 접근점의 형식 5.2.1. 개인명의 형식 5.2.2. 가족명의 형식 5.2.3. 단체명의 형식 5.2.4. 통일표제의 형식	5. 접근점 5.1. 개요 5.1.1. 접근점의 선정	5. 접근점 5.1. 개요 5.1.1. 접근점의 선정	5. 서지기술
6. 전거레코드	6. 전거레코드 6.1. 전거표목의 이름 선정 6.2. 전거표목의 언어 6.3. 전거표목의 이름 형식	6. 전거레코드 6.1. 전거형 접근점의 이름 선정 6.2. 전거형 접근점의 언어 6.3. 전거형 접근점의 형식	6. 접근점 6.1. 일반원칙 6.2. 접근점의 선정 6.3. 전거형 접근점 6.4. 이형의 이름	6. 접근점 6.1. 일반원칙 6.2. 접근점의 선정 6.3. 전거형 접근점 6.4. 이형의 이름
7. 탐색능력의 기반 7.1. 탐색과 검색 7.1.1. 탐색장치 7.1.2. 필수 접근점 7.1.3. 부차적 접근점	7. 탐색능력의 기반 7.1. 탐색과 검색 7.1.1. 탐색장치 7.1.2. 필수 접근점 7.1.3. 부차적 접근점	7. 탐색능력의 기반 7.1. 탐색과 검색 7.1.1. 탐색장치 7.1.2. 필수 접근점 7.1.3. 부차적 접근점	7. 탐색능력의 기반 7.1. 탐색 7.1.1. 탐색장치 7.1.2. 필수 접근점 7.1.3. 부차적 접근점	7. 탐색능력의 기반 7.1. 탐색 7.1.1. 탐색장치 7.1.2. 필수 접근점 7.1.3. 부차적 접근점 7.2. 검색 용어집
부록 목록규칙의 제정목표	부록 목록규칙의 제정목표 용어집	용어집	용어집	용어집

### 3. 새로운 목록규칙

목록원칙의 개정과 더불어 목록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기술을 적극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목록규칙의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0년 독일목록규칙이 개정되었고, 2009년에는 이탈리아목록규칙이 개정되었다. 앞으로 목록규칙의 개정은 계속해서 여러 나라로 번져갈 것이다.

#### 3.1 국제표준서지기술(ISBD)

국제서지표준기술은 1971년 단행본용을 시작으로 ISBD Family라는 이름 하에 총 8종이 발행되었다(단행본용, 전자자료용, 고서용, 지도자료용, 계속자료용, 총칙용, 비도서자료용, 악보용). 이들은 다시 수차례 개정되었다.

IFLA의 ISBD 사업은 30여 년간 모든 유형의 도서관 자료를 서지 데이터로 재현하기 위해 표준을 작성해왔고,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이 표준들을 관리 해왔다. ISBD는 공식적으로 25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ISBD는 각 국 목록위원회가 자국의 목록규칙을 개정할 때 개정작업의 지표 역할 해왔다고 볼 수 있다. IME ICC 회의에서 국가별 보고를 보면 유럽지역이 가장 많은 목록규칙을 보유하고 있고, 중남미 지역은 유럽의 영향이 강하며, 중동지역은 영미목록규칙의 영향 하에 있으며, 아시아지역에서는 한중일 세 나라만 자체 목록규칙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목록규칙에서 기술부문은 대부분 ISBD를 따르고 있었다. 또한 IME ICC 회의 과정에서 ISBD 개정 시 심사숙고해야 할 다른 언어와 문자, 출판물의 “문화적인” 양식의 차이를 인식한 데서 나온 제안이 있었으며 이의 반영을 위해 IFLA 목록분과 산하에 ISBD Review Group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이 그룹은 2007년 자료의 유형별로 나누어 발행하던 ISBD를 통합한 예비통합판(Preliminary consolidated edition)을 발행하였다. 예비통합판을 정식 통합판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2010년경에 완전한 통합판 형식이 출판될 것으로 전망한다.

##### 3.1.1 예비통합판 ISBD의 개정 내용

ISBD 예비통합판의 특징은 기존에는 자료의 유형별로 별도의 규칙을 작성하였던 것을 기술의 각 사항별로 다양한 자료의 유형을 모든 형태로 변경되어 한 조항에서 모든 유형의 자료에 해당하는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ISBD 예비통합판 목차는 다음과 같다.

Area 1: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	부록 A: 다단계 기술
Area 2: 판사항	부록 B: 양방향 레코드
Area 3: 자료 특성 사항	부록 C: 자료유형표시 및 특정자료종별의 권고 리스트
Area 4: 발행, 배포 등 사항	부록 D: 약어
Area 5: 형태기술사항	부록 E: 용어해설
Area 6: 총서사항	
Area 7: 주기사항	
Area 8: 자원 식별기호 및 입수조건 사항	

(1) FRBR과의 관계

예비통합판에서는 “출판물”(publication)이나 “문헌”(item) 대신 “저작”(work), “표현형”(expression), “구현형”(manifestation), “개별자료”(item)와 같은 용어를 도입해서 ISBD의 용어를 FRBR의 용어에 맞게 바꾸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 왔다. 검토위원회는 IFLA가 ISBD와 FRBR 모형 간의 관계를 분명히 규정할 필요는 있지만 ISBD는 구체적인 것을 다루는 데 비해 FRBR에 사용된 대부분의 용어들은 보다 상위수준의 추상성에서 착안된 개체-관계 모형 환경에서 정의된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FRBR 모형에서 정의된 개체들은 ISBD 기술부를 구성하는 요소와 분명히 관계가 있지만, 그 관계가 너무 복잡하여 단순히 용어를 대치하는 것만으로는 다 표현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FRBR의 개체속성 및 개체관계와 이에 대응되는 ISBD의 각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테이블을 마련하면 ISBD와 FRBR은 조화로운 관계를 누리게 될 것으로 생각하여, “ISBD 요소와 FRBR 개체속성 및 개체관계의 대응”(Mapping ISBD Elements to FRBR Entity Attributes and Relationships)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개정된 ISBD(G)를 시작으로 일부 용어를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문헌”(item)이나 “출판물”(publication) 대신 “자원”(resour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종래의 “문헌”(item)이라는 용어가 FRBR의 “개별자료”(item)라는 용어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 둘을 혼동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2) 주요 개정사항

기술부를 제1사항에서 제8사항까지 구분하고 각 사항별 용법을 필수(M=Mandatory), 해당시필수(C=Conditional), 선택(O=Optional)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술요소의 반복여부를 제시하였다.

자료유형표시(GMD)의 구분을 지도자료(Cartographic resource), 전자자료(Electronic resource), 그래픽(Graphic), 홀로그램(Hologram), 멀티미디어(Multimedia, 키트 포함), 마이크로자료(Microform), 동영상(Motion picture), 악보(Notated music resource), 인쇄문자자료(Printed text),

녹음자료(Sound recording), 비디오레코딩(Videorecording), 비주얼 프로젝션(Visual projection)으로 구분하였다. 각 GMD에 해당하는 특정자료종별(SMD)의 리스트를 부록 C에 수록하였다.

형태사항에 사용되는 약어표기에 대해서는 ISO 832, ISO 31에 근거하여 부록 E에 수록하였다.

이 부분은 전자출판물과 온라인출판물의 등장으로 표준에서 정한 GMD의 적용이 내용과 물리적 형태의 양면이 혼합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 발생한 목록작성의 난조를 해결하기 위해, GMD를 내용(content)과 물리적형태(carrier)로 구분하여 두 가지를 모두 표현하는 형식으로 변경을 추진하였다.

이에 여러 가지 형식이 포함된 자료의 경우 요소의 처리순서 등에 대해 2008년 퀘벡에서 개최된 IFLA WLIC 회의 기간 중 그룹회의를 열고 GMD를 이용자들이 먼저 자료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차원에서 “제0사항(Area 0)”에 두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두 자리로 구성된 GMD의 안을 작성하고 IFLA 홈페이지를 통해 각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는 실제 예시를 작성하고 있다.

〈표 2〉 Area 0의 예시

<p><b>오디오 CD</b>                  Music(Performed): Audio                  Prokofiev, S. / Romeo and Juliet, Decca, 1998.                  Content form: music                  Content qualification: performed                  Media type: audio</p>	<p><b>도서</b>                  Text: Unmediated                  Shakespeare, W. / Twelfth Night, Macmillan, 1971.                  Content form: text                  Media type: unmediated</p>
<p><b>지도</b>                  Image(Cartographic; Tactile): Unmediated                  Detailed road map of Guernsey, RNIB, 1999.                  Content form: image                  Content qualification: cartographic; tactile                  Media type: unmediated</p>	<p><b>웹사이트</b>                  Text: Electronic                  Wikipedia, Wikipedia Foundation, 2001-                  Content form: dataset                  Media type: electronic</p>

**모형과 그림자료**

(커피콩의 실물모형, 굽으면 커피향이 나도록 미세한 커피콩 향기가 코팅된 이미지가 있는 평면 그림카드)

Object: Unmediated + Image(Olfactory): Unmediated  
 The real bean!  
 Content form: object  
 Media type: unmediated  
 Content form: image  
 Content qualification: olfactory  
 Media type: Unmediated

**복수 형태의 콘텐츠로 구성된 자원 및 대체유형 예시**

Music(notated): Unmediated + Music(Performed): Audio + Text, Music(Notated), Music(Performed): Electronic  
 Cutting the changes: jazz improvisation via key centers(Physical description: 64 p. of music: 28 cm + 1 sound disc(digital: 4 3/4 in.) + 1 CD-ROM(4 3/4 in.)



기존의 자료유형별 ISBD에서 제6사항인 총서사항에서 ISSN의 기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을 확 인하고 모든 총서에 ISSN을 필수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예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야 규정에 한하여 작성하기로 하고, 국제서지표준이라는 이름에 부응하기 위해 구미 중심의 예시에 한중일 국가의 예시를 포함하게 되었고 완전한 예시 는 ISBD 자체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부록으로 간행하기로 하였다.

### (3) 장기간 논의 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접수되어 지속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 여러 제안에 따라 “비도서”(nonbook)라는 용어가 삭제되었다. 이유는 지도자료, 인쇄 악보, 전자자료 등 또한 “비도서”이므로 용어가 오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갱신되는 “가제식자료”(updating loose-leaves)를 사용하는 경우 “갱신자료”(integrating re-sources)를 사용하라는 제안이 있었다.
- 일부는 약어 사용을 원치 않았고, 일부는 계속해서 사용하기를 원했는데 이번 버전에서 약 어를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연구단은 제4항 즉, 발행사항의 이름을 “발행, 제작, 배포 등 사항”으로 변경하였다. 어떤 제 안은 “발행, 배포 등 사항”으로 되돌아가자고 하였지만 연구단은 새로운 이름, 특히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목록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용어를 취하였다.
- 일부 제안은 “s.l.”과 “s.n.”을 사용하지 말고 영어판에서만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연구 단은 ISBD가 지닌 국제성으로 해서 “s.l.”과 “s.n.”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 어떤 그룹은 생략기호 “et al.”을 괄호 안에 넣지 말고 괄호만 사용하자는 요청이 있었다. 그 러나 두 방식은 다른 의미를 가지는 데, 연구단은 생략기호 “et al.”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다.
- 별표제의 구두점이 세분되어 있지 않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는 상이한 목록작성기관들의 상이한 관행이기 때문에 보다 나은 대안을 택할 수 없었다.
- 계속자료의 본표제에 대해 다른 유형의 자료에서와 같이, 규정된 정보원에 약어나 두문자가 먼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완전한 형식보다는 약어나 두문자로 본표제를 선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ISBD(계속자료용)을 작성할 때 국제표준데이터시스템(ISDS)센터 및 AACR커뮤 니티와 논의하여 정했기 때문에, 그들과 논의 없이 이 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 에 따라 ISBD Review Group 내에 AACR 연락관을 두었다.
- 지도자료나 인쇄악보, 연속간행물의 권호표시 이외의 전자자료에 대한 형태사항의 특정자료 중별(SMD)를 자료특성사항(제3사항)으로 보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전에 오래도록 논의하였는데 유용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이전의 필요시 주기사항에 기술할 수 있다.
- 또한 제3사항에서 인쇄악보에 대한 것을 삭제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으나 이 제안은 음악

커뮤니티와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

- “선행지”(preliminaries: 先行紙)에 “표지”(cover)를 포함시키거나 제외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것이 제안한 국가만의 관용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여 포함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 형태사항인 제5사항에서 크기에 대한 기술요소를 보다 일관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반면에 지도자료와 악보 커뮤니티와 상의하였는데, 이들은 동일한 용례로 지속하는 쪽을 택했다.

(4) 기타 접수 의견

- 유형이 다른 자료들의 다양한 기술 정보원을 일치시키는 것의 가능성
- ISBD에서 출판되지 않은 자료까지 확대하여 수용 여부
- 시청각자료, 녹음자료, 비디오녹화자료, 정지 및 동화상 자료에 대한 규정의 갱신
- 연속간행물의 현저한 변경과 관련된 규정의 재검토 필요(IME ICC4 결과 보고에서도 강조)
- 본총서의 권호를 제7사항에 두기 보다는 하위총서의 표제 및 번호를 제6사항에 함께 기술할지의 여부. 왜 제6사항에 모든 총서의 모든 권호를 기술해야 하는가?
- 용어집에 필요한 정의는 무엇이며 어떤 정의가 개정되어야 하는가?
- 유니코드 중 알파벳이나 숫자로 되어 있지 않은 문자를 조사해야 한다. 예를 들면 판권을 표시하는 “cop.”에 대한 기호를 조사해야 한다.
- 음악자료에 대한 다수의 그룹명, 연주자명 등의 기재 위치를 책임표시사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기사항에 할 것인지?
- 전자자료가 새로운 판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술을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제4사항의 발행지에 자세한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필요하다면 차라리 주기에 기재하라는 제안이 있다.
- 제5사항에 원격접근 전자자료가 기술될 수 있도록 더 상세한 규정을 추가하라는 제안이 있다.
- 최근 갱신되지 않은 비도서자료용 ISBD(NBM)과 인쇄악보용 ISBD(PM)을 갱신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 자료의 “일반적인 크기”(usual dimensions)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안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자료라도 크기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예, 마이크로피치, 카세트테이프 등의 “일반적인 크기”).
- 주기사항의 순서를 재고해야 하며 FRBR의 순서와 비교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예비통합판 ISBD는 규칙을 수용하기 편리하고 정기적인 갱신이 용이한 가제식 출판 형태로 2007년 발행되었다.

## 3.2 자원의 기술과 접근(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RDA)

### 3.2.1 RDA의 개발 역사

RDA는 사실상 1997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AACR의 원칙과 미래의 발전에 관한 국제 회의에서 재구조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그 시기는 IFLA에서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연구해 온 FRBR이 완성된 시기이다. FRBR은 새로운 목록의 개념모형으로 AACR의 개정을 촉발하는 데 자극을 주었다. 또한 FRBR에 이어서 FRBR 패밀리인 FRAD, FRASAD의 개발 진행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IFLA 목록분과의 사업으로 파리원칙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목록원칙(ICP) 작업이 2003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10년간 목록을 둘러싸고 한꺼번에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에 대처해야 할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AACR의 개정을 맡아온 다국적 목록위원회인 영미목록 규칙개정합동위원회(JSC)는 2003년 AACR2의 2002년 개정판을 발표한 후, 더 이상 AACR2의 개정작업을 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AACR2를 전면개정하여 AACR3를 작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후 2004년 12월 동 위원회의 내부자료로 AACR3의 일부분이 완성되었다. 2005년 JSC는 AACR3가 도서관뿐만 아니라 박물관과 문서관,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넘어서는 규칙이므로 명칭을 RDA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07년부터는 RDA개발합동위원회(JSC: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7년 10월에는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4개국의 국립도서관들이 2009년까지 RDA를 도입하겠다고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8년 1월 미국 의회도서관(LC)에서는 미국도서관협회(ALA)와 공동으로 RDA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까지 설치하였으나 RDA가 너무 과도하게 양이 많고 기존의 AACR2와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일시중지를 권고하였지만 JSC는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자 LC내에서는 RDA/MARC워킹그룹을 만들어 매핑 및 MARC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초안 발표가 지연되면서 2008년 5월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3개 국립도서관에서 RDA 도입은 추진하지만 각 도서관이 검증한 후 할 것이므로 2009년도에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05년부터 초안 발표의 지연을 거듭하던 끝에 2008년 11월 RDA의 초안이 발표되었고, 2009년 2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초안을 기초로 하여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3.2.2 RDA의 특징

RDA는 디지털세계를 위해 설계된 자원기술과 접근의 새로운 표준으로서 디지털형태이든 아닌 모든 종류의 자원에 적용하고, 도서관 이외의 커뮤니티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저장하고 작동시키는 시스템과 별도로 광범위한 상호운용성을 가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RDA는 FRBR 모형을 반영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서지레코드의 작성 기준은 구현형(manifestation)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목록규칙들이 자료유형(도서, 지도, 악보 등)에 따라 목록규칙의 장을 나누었던 것을 달리하여 데이터요소별로 장과 절을 나누었다.

중전의 자료유형표시(GMD: General Material Designation)는 하나의 데이터요소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요소의 값이 자원의 내용(content)과 그 자원의 수록매체(carrier)가 뒤섞이는 문제로 해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따라서 이를 내용과 매체에 대해 두 자리로 구분하여 기술하도록 제시하였다. 예컨대, 내용은 문자, 이미지, 악보 등으로, 매체구분은 오디오, 디지털, 마이크로형태, 매체가 없는 것 등으로 구분한다. 각 데이터요소의 기술문법은 취급하였으나 목록의 표현(display) 방법에 대한 규칙을 정하지는 않았다. 기존의 영미목록규칙에서는 ISBD에서 사용한 사항을 구별하는 구두법은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전거레코드의 사용을 명확히 하였다.

초기의 안에서 기존의 20세기 목록규칙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보다 메타데이터 개념이 도입되어 의미와 구문을 분리하여 취급한다. 이에 다른 메타데이터 표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더블린코어 관계자와 회의를 개최하고 DCMI/RDA Task Group을 결성하였다. 이 그룹은 RDA 어휘 프로젝트(RDA Vocabularies Project),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에 착수하여, RDFS와 SKOS에서 범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휘 세트를 작성하여 레지스트리를 구축하고 있다.

### 3.2.3 RDA의 내용 분석

JSC는 당초 2007년 10월 발표(안)에서 2부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2008년 발표 초안에서는 FRBR의 개념을 더욱 깊이 있게 반영하기 위해 10부(session), 37장(section)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초안은 “제0부 서론”에서 나머지 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설명하고, 제1-4부에서 FRBR과 FRAD에서 정의된 개체 속성과 일치하는 요소를 다루며, 제5-10부는 FRBR과 FRAD에서 정의한 관계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 제0부 서론

서론은 RDA의 전반적인 목적 및 적용범위, 주요 특징, 관련 표준, 개념모형, 원칙, 구조, 핵심 요소, 접근점, 대안 및 선택사항, 예시, 국제화, 데이터의 부호화(encoding)에 대해 종합적인 설명을 다룬다. RDA의 목적은 자원의 발견을 지원하고, 데이터 작성에 대한 지침(guideline)과 사용법(instruction)을 제공하는 데 있다.

적용범위에는 디지털자원과 디지털자원이 아닌 자료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구조에 적용하기 위해 관계데이터베이스 및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있지만 중전의

데이터베이스구조와 호환성을 갖는다. 기초를 이루는 개념모형은 FRBR과 FRAD이며, FRSAD가 개발되면 이를 도입할 것이다. 반드시 기록해야 할 핵심요소를 정하고, 임의사항을 여러 군데 두었다

### 제1부 구현형과 개별자료의 속성 기록

- 1장. 일반지침, 2장. 구현형과 개별자료의 식별, 3장. 수록매체(carrier)의 기술, 4장. 정보의 입수(acquisition) 및 접근 제공

1장에서는 2-4장에서 일반지침과 사용법의 근간이 되는 기능적 목적과 원칙을 설명하며, 구현형과 개별자료의 식별과 기술을 위한 핵심요소를 상세화 한다. 2장에서는 구현형과 개별자료의 구별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된 요소를 다룬다. 이 요소에는 표제, 책임표시, 판사항 등이 포함되며 이용자가 찾는 자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 혹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복수의 자원 간을 구별하기 위한 정보가 포함된다.

3장에서는 자원의 수록매체(carrier)를 기술하는 방법을 주로 다룬다. 포함되는 요소는 이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인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수록매체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법을 포함한다. 제4장은 정보의 입수와 접근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속성을 반영한다(예, 입수조건, 연락처 정보, 접근제한). 요소는 수량(예, 가격), 특성(예, 접근 제한), 역할(예, 공급자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제2부 저작과 표현형의 속성 기록

- 5장. 일반지침, 6장. 저작과 표현형의 식별, 7장. 내용(content) 기술

5장은 저작과 표현형에 대한 식별과 기술을 위한 핵심요소, 전거형 접근점과 이형 접근점에 관한 일반 지침과 사용법을 제공한다. 6장은 저작과 표현형 식별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요소를 다루며, 요소는 저작에 대한 채택표제와 이형표제, 저작의 날짜나 원래의 장소 등으로 유사한 저작과 표현형을 식별하는 정보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다. 7장은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정보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의 성질과 범위, 이용대상 등을 포함한다.

### 제3부 개인, 가족, 단체의 속성 기록

- 8장. 일반지침, 9장. 개인의 식별, 10장. 가족의 식별, 11장. 단체의 식별

8장은 개인, 가족, 단체의 식별을 위한 핵심요소, 거형 접근점과 이형 접근점 작성에 대한 지침과 사용법을 제공한다. 9장-11장은 개인, 가족, 단체를 식별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요소로서 이들의 이름 및 이름과 관련된 채택된 이름과 이형이름, 날짜와 장소 등이 포함된다.

제4부 개념, 객체, 사건, 장소의 속성 기록(2009년 발표)

- 12장. 일반지침\*, 13장. 개념의 식별\*, 14장. 대상의 식별\*,
- 15장. 사건의 식별\*, 16장. 장소의 식별\*

12장은 개념, 대상, 사건, 장소의 식별을 위한 핵심요소, 용어나 이름(적용범위와 사용날짜 등)의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의 기록과 정보원 인용에 관한 내요을 포함한다. 13장-16장은 개념, 대상, 사건, 장소의 식별을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소 즉, 개념, 대상, 사건, 장소, 개념이나 대상의 유형 등에 대한 채택 및 이형의 용어나 이름을 포함한다.

제5부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간의 1차 관계 기록

- 17장. 일반지침

17장은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간의 일차적 관계 기록에 관한 지침과 사용법 및 일차적 관계를 기록하기 위한 식별기호, 전거형 접근점, 복합된 기술에 관한 일반지침과사용법을 제공한다.

제6부 자원과 관련된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관계 기록

- 18장. 일반지침, 19장. 저작과 관련된 개인, 가족, 단체, 20장. 표현형과 관련된 개인, 가족, 단체,
- 21장. 구현형과 관련된 개인, 가족, 단체, 22장. 개별자료와 관련된 개인, 가족, 단체

18장은 자원 및 그 해당 자원과 관련된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핵심요소, 식별기호와 전거형 접근점의 사용에 관하 종합 지침과 사용법을 제공한다. 19장-22장은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와 이들과 관련된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며, 저작의 표현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저작의 저작자, 편집자, 번역자 등의 요소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7부 저작의 주제 관계 기록\*(2009년 발표)

- 23장 저작의 주제 관계 기록에 대한 일반지침\*

23장은 저작의 주제 관계 기록에 관한 일반지침과 주제 관계를 기록하기 위한 식별기호의 사용과 전거형 접근점에 관한 지침과 사용설명을 제공한다.

제8부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간의 관계 기록

- 24장.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간의 관계 기록에 대한 일반지침,
- 25장. 관련 저작, 26장. 관련 표현형, 27장. 관련 구현형, 28장. 관련 개별자료

24장은 25-28장의 근간이 되는 기능적 목적과 원칙, 저작(W)과 표현형(E), 구현형(M), 개

별자료(I) 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핵심요소 및 이들에 대한 식별기호와 전거형 접근점, 관계의 기술 등에 관한 지침과 사용법을 제공한다. 25-28장은 저작과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간의 관계, 관련된 WEMI에 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의존하는 정보에 관한 지침과 사용법을 제공한다.

#### 제9부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관계 기록

29장. 개인, 가문, 단체 간의 관계 기록에 관한 종합지침,

30장. 관련 개인, 31장. 관련 가족, 32장. 관련 단체

29장은 30-32장의 근간을 이루는 기능적 목적과 원칙,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관계를 반영한 핵심요소에 관한 지침과 사용법을 제공한다. 30-32장은 이용자가 개인, 가족, 단체 및 이와 관련된 개인, 가족, 단체를 찾을 때 의존하게 되는 정보 등에 관한 지침과 사용법을 제공한다.

#### 제10부 개념, 대상, 사건, 장소 간의 관계 기록\*(2009년 발표)

33장. 개념, 객체, 이벤트, 장소 간의 관계 기록에 관한 종합지침\*,

34장. 관련된 개념\*, 35장. 관련된 객체\*, 36장. 관련된 이벤트\*, 37장. 관련된 장소\*

33장은 34-37장의 근간을 이루는 기능적 목적과 원칙을 제시하며, 개념, 대상, 사건, 장소 간의 관계를 반영한 핵심요소를 포함한다. 34-37장은 이용자가 개념, 대상, 사건, 장소에 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의존하는 정보의 상위어와 하위어 간의 관계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에 관한 지침과 사용법을 포함한다.

#### 용어집

부록: 12건

A. 대소문자, B. 약어, C. 문두 관사,

D. 기술(記述) 데이터에 대한 구문 기록

자원의 부호화나 표현을 위해 선택된 관련 메타데이터 스키마에 대해 자원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RDA 데이터 요소의 매핑을 제공한다(예, ISBD, MARC21, 더블린 코어).

E. 접근점 제어에 대한 구문 기록

접근점과 전거데이터의 부호화나 표현을 위해 선택된 관련 메타데이터 스키마에 자원과 관련된 개체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RDA 데이터 요소의 매핑을 제공한다(예, MARC 21).

F. 개인명에 대한 추가 규정

9장에서 제공된 일반지침과 사용법을 보충하는 다수의 특정 언어로 된 개인명을 선정하고 기록하는 것에 관한 사용법을 제공한다.

G. 귀족 지위(titles of nobility), 계급 용어 등

H. 서력(Christian Calendar) 일자(연월일)

I. 관계 표시자: 자원과 관련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관계

자원 및 해당 자원과 관련된 개인, 가족, 단체 간 관계의 성질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지시어로서 사용되는 용어를 열거하여 제공하며, 관계지시어로 사용된 용어의 정의와 그 사용법을 제공한다.

J. 관계 표시자: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간의 관계

저작과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간의 관계의 성질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지시어로서 사용되는 용어를 열거하여 제공하며, 관계지시어로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와 그 사용설명을 제공한다.

K. 관계 표시자: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관계

개인, 가족, 단체 간 관계의 성질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지시어로 사용되는 용어를 열거하여 제공하며, 관계지시어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그 사용법을 제공한다.

L\*. 관계 표시자: 개념, 대상, 사건, 장소 간의 관계(2009 발표)

개념, 대상, 사건, 장소 간의 관계의 성질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지시어로 사용되는 용어를 열거하여 제공하며, 관계지시어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그 사용법을 제공한다.

M. RDA 사례(완성된 예시)

### 3.2.4 AACR2와 RDA의 비교

AACR2와 RDA의 용어 등을 비교해보면서 RDA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AACR2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용어는 “main entry”와 통일표제이다. main entry는 전거형 표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지레코드 전체라고 할 수도 있다. 통일표제 문제는 AACR2에서 복수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며, 이는 저작에 대해 표제를 집중시킬 수 있고, 하나의 저작에 대해 유일하고도 구별되는 표제이기도 하며, 표준화된 종합적인 표제가 될 수도 있다.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 대신, RDA에서는 ‘채택표제(preferred title)’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저작자명과 함께 채택표제를 링크하는 경우, 저작에 대한 “채택접근점”이 된다. 이 부분은 기본표목이라는 개념이 RDA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DA에서는 “전거제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 용어는 개체에 대한 이름의 디스플레이 형식을 제어하는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거의 기본값(default)으로 하나의 형식이나 “채택접근점”을 선언하지만 이용자의 요구에 가장 부응하는 특정 언어나 문자로 디스플레이 되도록 할 수 있다.



(1) 용어

AACR2	RDA
기본표목(main entry)	
통일표제(uniform title)	채택표제(preferred title) 저작의 이름(해당 시 저작자명을 포함하기 위해)
전거제어(authority control)	

(2) 범위

구분	AACR2	RDA
기술부(Description)	ISBD 요소 자료유형별 구분 간행방식 기술의 유형	FRBR 개체의 속성 내용(content)와 수록매체(carrier)의 유형 간행방식 기술의 유형
접근(Access)	접근점의 선정 표목의 형식 참조	FRBR 관계 FRAD 개체의 속성 FRAD 관계 주제 관계*

(3) 구조

AACR2	RDA
<p><b>제1부 - 기술</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술 총칙</li> <li>2. 도서, 팸플릿, 낱장자료</li> <li>3. 지도자료</li> <li>4. 필사자료</li> <li>5. 악보</li> <li>6. 녹음자료</li> <li>7. 동영상자료 및 비디오녹화자료</li> <li>8. 그래픽자료</li> <li>9. 전자자료</li> <li>10. 3차원입체자료 및 식물자료</li> <li>11. 마이크로자료</li> <li>12. 계속자료</li> <li>13. 분출</li> </ol> <p><b>제2부 - 표목, 통일표제, 참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 접근점 선정</li> <li>22. 개인명 표목</li> <li>23. 지명</li> <li>24. 단체명표목</li> <li>25. 통일표제</li> <li>26. 참조</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RBR/FRAD에서의 속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현형과 개별자료의 속성</li> <li>2. 저작과 표현형의 속성</li> <li>3. 개인, 가족, 단체의 속성</li> <li>4. 개념*, 대상*, 사건*, 장소의 속성</li> </ol> </li> <li>• FRBR/FRAD에서의 관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주요 관계</li> <li>6. 자원과 관련된 개인, 가족, 단체에 대한 관계</li> <li>7. 주제 관계*</li> <li>8.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간의 관계</li> <li>9.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관계</li> <li>10. 개념*, 대상*, 사건*, 장소* 간의 관계</li> </ol> </li> </ul>

(4) 자료의 범주(자료종별표시: GMD)

AACR2	RDA
전자자료, 마이크로자료, 녹음자료, 비디오녹화자료	• 매체유형(Media type) 오디오, 컴퓨터, 마이크로형태, 비디오
필름스트립, 동영상, 슬라이드, 투영자료(transparency)	• 수록매체유형(Carrier type) 필름 릴, 필름 스트립, 오버헤드 투영자료(overhead transparency), 슬라이드
지도자료, 악보(music), 텍스트	• 내용유형(Content type) 지도, 기보된 악보(notated music), 텍스트

(5) 기술의 수준

AACR2 제1수준의 기술	RDA 핵심요소
본표제, 첫 번째 책임표시, 판표시, 자료특성표시, 첫 번째 발행처 등, 발행년도 등, 면·장수, 주기, 표준번호	본표제, 첫 번째 책임표시, 판표시, 개정판 표시, 연속간행물의 권·호, 지도의 축척, 첫 번째 발행지, 첫 번째 발행처명, 발행년, 총서/하위총서의 본표제, 총서/하위총서 내의 총서번호, 구현형의 식별기호, 수록매체(carrier)의 유형, 면·장수

(6)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변화

AACR2	R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속간행물의 본표제에서의 주요한 변경</li> <li>연속간행물의 기본저록에 영향을 주는 책임성의 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속간행물의 본표제의 주요한 변경</li> <li>저작으로서 연속간행물의 정체성에 변화를 일으키는 책임성의 변경</li> <li>간행방식의 변경</li> <li>매체유형의 변경</li> <li>연속간행물이나 갱신자료(interating resource)의 판사항의 변경</li> <li>새로 설정된 갱신자료</li> </ul>

(7) 기술의 정보원

AACR2	R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에 따라 기술의 으뜸정보원이 다름</li> <li>도서, 팸플릿, 인쇄날장자료, 지도자료, 필사자료, 악보, 녹음자료, 동화상, 비디오녹화자료, 그래픽자료, 전자자료, 3차원입체자료, 실물자료, 마이크로자료, 계속자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가지 범주의 자료에 따라 우선정보원을 나눔</li> <li>- 날장자료나 카드(혹은 그러한 이미지)</li> <li>- 동화상(moving images)</li> <li>- 기타 자원</li> </ul>

(8) 전사(轉寫, Transcription)

- 정보원으로부터 전사한 요소: 표제, 책임표시, 판사항 등
- 전사한 데이터의 수정: 대문자, 발음부호, 기호, 머리글자와 약어의 띄어쓰기
- 약어

- AACR: 전사한 요소에서 약어 사용을 허용
- RDA: 정보원에 약어 형태로 나타나 있는 경우에만 약어표기를 허용
- 오기(inaccuracies)
  - AACR: 전사한 요소 내에서 잘못 표기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허용
  - RDA: 정보원에 나타나 있는 대로 잘못 표기된 것을 그대로 옮김

(9) 4인 이상의 저자인 경우 3인까지만 한정하는 규칙(Rule of three)

- 공동 저작
  - AACR2: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 3인까지만 기술하고 표목으로 삼는다.
  - RDA: 주된 책임을 지닌 첫 번째 개인이나 가족, 단체(혹은 주된 책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기재되어 있는 이름)
- 상이한 개인이나 단체의 저작의 편집물
  - AACR2: 종합표제가 없는 경우, 첫 번째 저작을 표목으로 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편집물이 3편 이하인 경우, 이를 부출한다.
  - RDA: 각 저작에 대해 독립된 접근점 작성
- 조약집 등
  - AACR2: 조약 체결 당사자가 4 이상인 경우, 표제를 표목으로 한다.
  - RDA: 첫 번째 조약자(한 측에 한 조약자에 대해서는 예외), 첫 번째 조약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표제를 표목으로 한다.

(10) 변환 도구

다음의 자료를 참조로 하여, 데이터의 유실이 발생하기는 하나 상호 매핑할 수 있다.

- RDA에서의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 부문
- ISBD와 MARC로의 매핑(Mappings to ISBD and MARC)
- 워크플로우 예시
- AACR2로의 변경 설명
- AACR2 규칙 조항 검색

(11) RDA에서의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 부문

〈서지레코드〉

RDA 이전 용어(Pre-RDA context)	RDA 용어(RDA terminology)	RDA에서의 위치
기술부(Description)	기술부(Description)	

자원으로부터 전사(transcription) 하여 기록한 기술요소	구현형과 개별자료의 식별	제1부 제2장
형태의 기술	수록매체(carriers)의 기술	제1부 제3장
내용(content)에 관한 주기	내용 기술	제2부 제7장
정보의 입수와 접근	정보의 입수와 접근 제공	제1부 제4장
저작과 표현형에 관한 주기	내용 기술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간의 1차 관계 기록	제2부 제7장 제5부
기타 판(版)과 저작의 인용 주기	-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간의 관계 기록	- 제8부
<b>기본표목(main entry)</b>	<b>채택접근점(preferred access point)</b>	
기본표목 선정	구현형과 구현형에 포함된 저작 간의 일차관계 기록	제5부(17.8)
기본표목 작성	전자형 접근점 작성	제2부 제6장(저작) 제3부(개인, 가족, 단체)
<b>부출표목(Added entries)</b>	<b>접근점(Access points)</b>	
개인, 가족, 단체에 대한 부출표목 선정	자원과 관련된 개인, 가족, 단체에 대한 관계 기록	제6부
개인, 가족, 단체에 대한 부출표목 작성	개인, 가족, 단체를 표현하는 전자형 접근점 작성	제3부

<전자레코드>

RDA 이전 용어(Pre-RDA context)	RDA 용어(RDA terminology)	RDA에서의 위치
개인, 가족, 단체에 대한 표목 작성	개인,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접근점 작성	제3부
저작과 표현형에 대한 표목 작성	저작이나 표현형을 나타내는 채택접근점(preferred access point) 작성	제2부 제6장
일반주제와 지명주제에 대한 표목 작성	개념, 대상, 사건, 장소에 대한 채택접근점 작성	제4부*
<b>보라 참조(See references)</b>	<b>이형접근점(Variant access points)</b>	
개인, 가족, 단체에 대하여	개인,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이형 접근점 작성	제3부
저작과 표현형에 대하여	저작과 표현형을 나타내는 이형접근점 작성	제2부 제6장
일반주제명 및 지명주제명에 대하여	개념, 대상, 사건, 장소를 나타내는 이형접근점 작성	제4부*
<b>도보라 참조(See also references)</b>	<b>관련 개체에 대한 채택접근점(Preferred access points for related entities)</b>	
관련 개인, 가족, 단체에 대하여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관계 기록	제9부
관련 저작과 표현형에 대하여	저작과 표현형 간의 관계 기록	제8부 제24-26장
일반주제와 지리명 주제에 대하여	개념, 대상, 사건, 장소 간의 관계 기록	제10부*
<b>설명 참조(Explanatory references)</b>	<b>관계 설명(Explanation of relationship)</b>	
관련 개인, 가족, 단체에 대하여	개인, 가족, 단체에 대한 관계 설명	제9부
관련 저작과 표현형에 대하여	저작과 표현형에 대한 관계 설명	제8부 24-26장
관련 일반주제와 지명주제에 대하여	개념, 대상, 사건, 장소에 대한 관계 설명	제10부*
<b>주기(Notes)</b>	<b>주기 등(Notes, etc.)</b>	

전기적 혹은 내력 데이터(Biographical or historical data)	개인과 관련된 일자, 출생지, 단체의 역사 등	제3부 제9-11장 (개인, 가족, 단체) 제2부 제6장(저작)
조회정보원	조회정보원	제3부 제8장 (개인, 가족, 단체) 제2부 제5장(저작) 제4부 12장* (개념, 대상, 사건, 장소)
목록자주기	목록자주기	제3부 제8장 (개인, 가족, 단체) 제3부 제8장 (제2부 제5장(저작) 제4부 제12장* (개념, 대상, 사건, 장소)

### 3.2.5 RDA 내에서의 ISBD의 위상

최근, ISBD리뷰그룹에는 RDA 연락원을 두고 있다. 양자간의 조화를 위한 조치이다. 최근 일어난 문제로 두 표준 간의 필수요소(mandatory element)에 대해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ISBD 리뷰그룹과 FRBR 리뷰그룹의 제안으로 RDA 핵심요소에 구현형의 속성에 속하는 “매체유형(media type)”과 본표제 다음에 오는 책임표시와 추가적인 판사항이 식별과 선정을 위해 중요하다 하는 것에 동의하여, RDA 핵심요소세트(core element set)에 추가하였다.

RDA 내에서 ISBD는 부록 D로 처리되어 있으며, ISBD 형태로 디스플레이 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다. 초기의 RDA에서는 ISBD의 구두점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다국적 목록 규칙을 고려하여 다시 도입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록으로 처리된 ISBD는 국제적인 서지표준이라는 의미가 퇴색되는 듯한 인상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반면, RDA의 메타데이터적인 성격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 3.2.6 메타데이터분야와의 협력

RDA위원회는 매체유형, 내용유형, 수록매체유형에 관한 통제어휘를 개발하는 다양한 메타데이터 분야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더블린코어와 IEEE/LOM, 시맨틱웹분야 대표들이 2007년 영국 국립도서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RDA와 메타데이터 간의 정합성을 시험과, RDA 요소세트 및 통제어휘에 대한 데이터사전을 개발과 레지스트리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RDA/MARC 워킹그룹은 도서관 통합시스템에서 RDA 적용을 위한 개발에 착수하였다.

FRBR 기반으로 구조화된 서지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목록의 구조를 제시하며, 보다 명확하게 링크하는 기계 친화적인 링크를 가진다. 오히려 URIs와 더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다. 데이터 간의 관계와 역할 지시에 관한 것을 강조하며, 특히 식별에 관해서 목록자가 작성하는 주기사항의 신뢰성이 낮다고 보며 텍스트 스트링을 비교적 덜 강조한다. 시맨틱 웹의 장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기존의 표준을 대체하는 신형 표준으로 등장하였다.

표준의 유형	구형 표준	신형 표준
서지 모형	없음	FRBR, FRBRoo
메타데이터 콘텐츠	AACR2	RDA
메타데이터 구조	MARC21 서지데이터용	RDAVocab
이름 전거	MARC21 전거데이터용	FRAD
주제명 전거	MARC21 전거데이터용	FRASAR, SKOS
부호화(encoding)	MARC21	XML, XML/RDF

RDA에서 사용되는 어휘와 텍스트는 RDA 온라인 틀에 연결되어 RDA의 요소, 역할지시어 등의 어휘를 미국과학디지털도서관(NDSL: National Science Digital Library)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에 미리 등록해 두고 있어 어휘 변화 추적이 가능하다. 또한 2008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DCMI 회의에서 다언어 RDA 어휘를 논의한 이래 이미 독일어 버전이 준비하고 있다. 나아가 MARC21 데이터를 FRBR 개체와 RDA 속으로 변환하기 위한 실무그룹으로 “RDA/MARC Working Group”를 설치하고 2009년 7월 17일 기준으로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였다.

RDA 수용을 위한 MARC21의 필드 및 부호화정보 변화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또한 RDA의 검증을 위해 20개 기관에서 다양한 테스트 파트너들이 20-25개의 테스트용 자료를 사용하여 레코드를 작성하여, 현재 사용 중인 목록규칙과의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컨대, AACR2, DACS, VRA를 사용하여 각각의 자원에 대해 각기 다른 사람이 핵심요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시험 작성하여 문제점을 파악할 예정이다.

〈표 3〉 RDA 수용을 위한 MARC21의 신규 필드 내역

(1) 서지데이터용 신규 필드
336 내용유형(content type)
337 매체유형(Media Type)
338 수록매체유형(Carrier Type)
008 신규부호
h 합창용악보
i 지휘자용악보(condensed score)
j 지휘자용파트보
007 신규부호
k 전자자료의 컴퓨터카드
d 전자자료의 디스크, 정의되지 않은 유형 007/01(특정자료종별)
e 전자자료의 디스크 카트리지, 정의되지 않은 유형007/01(특정자료종별)
h 마이크로자료의 마이크로슬립 007/01(특정자료종별)

- f 영사그래픽의 기타 혹은 정의되지 않은 필름스트립 007/01(특정자료종별)
  - a 비영사그래픽의 활동카드 007/01(특정자료종별)
  - k 비영사그래픽의 포스터 007/01(특정자료종별)
  - p 비영사그래픽의 엽서 007/01(특정자료종별)
  - q 비영사그래픽의 아이콘 007/01(특정자료종별)
  - r 비영사그래픽의 레디오그래프(radiograph) 007/01(특정자료종별)
  - s 비영사그래픽의 교재물(study print) 007/01(특정자료종별)
  - v 비영사그래픽의 사진, 정의되지 않은 유형의 자료 007/01(특정자료종별)
  - v 비영사그래픽의 가족을 소재로 한 지도, 지구의 007/04(주요기본재료)
  - w 비영사그래픽의 양피지를 소재로 한 지도, 지구의 007/04(주요기본재료)
  - n 비영사그래픽의 송아지 양피지를 소재로 한 지도, 지구의 007/04(주요기본재료)
  - i 비영사그래픽의 플라스틱 소재의 지도, 지구의 007/04(주요기본재료)
  - l 비영사그래픽의 비닐을 소재로 한 지도, 지구의 007/04(주요기본재료)
- (2) 전거데이터용
- 046 특정부호화일자(Special Coded Dates)
  - 336 내용유형(Content Type)
  - 370 관련장소(Associated Place)
  - 371 주소(Address)
  - 372 활동분야(Field of Activity)
  - 373 소속(Affiliation)
  - 374 직업(Occupation)
  - 375 성별(Gender)
  - 376 가족정보(Family Information)
  - 377 관련 언어(Associated Language)
- (3) 소장데이터용
- 337 매체유형(Media Type)
  - 338 록매체(Carrier Type)
  - 007 신규부호 - ※ 서지데이터용 부호와 동일
- 

## 4. 결 론

앞에서 살펴본 ICP와 ISBD, RDA는 FRBR, FRAD, FR SAR이라는 개념 하에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도서관계에 변화의 동력을 전하고 있다. 그 동력의 원천은 카드목록시대에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 목록의 두 번째 목적을, 오늘날의 웹과 링크 기술을 이용하여 실현하려는 의지에서 나온다.

이제 목록은 한정적인 “데이터의 세계(World of data)”만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목록자들은 이용자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자원을 발견할 수 있는 “서지의 세계(bibliographic universe)”를 그려내려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

목록 원칙과 규칙은 도서관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다. 도서관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데이터를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관 서비스의 미래는 자원의 발견 역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원발견 도구는 바로 목록이다. 우리의 목록을 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구조와 어휘의 정체성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목록은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거기에서 “링크한 정보(linked data)”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이용자에게 줄 수 있을 때, “목록의 황금시대”는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Tait, James A. 1969. Authors and titles. Clive Bingley Ltd. 108-120.
- Domanovsky, Akos. 1985. Editor entries and the principles of cataloguing. In *Foundation of cataloguing: a sourcebook*, edited by Michael Carpenter and Elaine Svenonius. Libraries Unlimited Inc. 193-207.
- Eva, Verona. 1971. Statement of principles adop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 Paris, October, 1961. Annotated edition with Commentary and Examples. IFLA Committee on Cataloguing. London: IFLA Committee on Cataloguing, 1971. xiii. 한글번역판: *저록작성원칙규범: 국제목록원칙회의 채택 1961. 10 파리 / 해설과 예시: 에바 베로나; 번역: 김태수, 이재선. 해설판. 서울: 문헌정보처리연구회, 2005. xiii, 156.*
- Tait, James A. 1969. *Authors and Titles: An Analytical Study of the Author Concept in Codes of Cataloguing Rules in the English Language*. London: Clive Bingley. 109.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 1963.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 Paris, 9-18 October 1961*. Edited by A. H. Chaplin and D. Anderson. London: Clive Bingley. 43.
- Verona, Eva. 1975. *Corporate Headings: their Use in Library Catalogues and National Bibliographies: a Comparative and Critical Study*. London: IFLA Committee on Cataloguing. 155.
- Gull, C.D. 1981. The impact of electronics upon cataloguing rules.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 1981.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 on Cataloguing Principles, Paris, 9th-18th October 1961. Edited by A.H. Chaplin and Dorothy Andoerson. [Re-issued ed.]. London: IFLA Internaitonal Office for UBC. 281-290.
- Hamdy, Nabil. 1973. Concept of Main Entry as Presented in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A Critical Appraisal with some Suggestions: Author Main Entry versus Title Main Entry. Littleton, Colo.: Libraries Unlimited. 18.
- Jeffreys, Alan. 1967. Alternative headings. Catalogue and Index 8(Oct. 1967): 4-5.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2nd Editon 2002 Revision, 2004 update.(2004) ALA: CLA: CILIP, 2004. 2.
- Wajenberg, Arnold S. 1989. The cataloger's view of authorship. In Conceptual foundations of descriptive cataloging, Edited by Elaine Svenonius. San Diego: Academic Press, Inc. 22.
- International Conf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 1981.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 Paris, 9th-18th October 1961. Edited by A.H. Chaplin and Dorothy Andoerson. [Re-issued ed.]. London: IFLA Internaitonal Office for UBC, 1981. p.iii. 일련의 프로젝트는 1979년에 List of legislative and ministerial bodies in European countries의 제2판이, 1980년에 African legislative and ministerial bodies이 발행되었다. 또한 1971년에 Statement of Principles, an annotated edition이, 1975년에 Corporate headings ... a comparative and critical study이, 1980년에 Form and structure of corporate haedings이 각각 발행되었다.
- Tillett, Barbara. 2009. Mission accomplished - the new IFLA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ICP) Report. <<http://www.ifla.org/files/hq/papers/ifla75/215-tillett-en.pdf>>. [2009.9.25 인용].
- JSC for Development of RDA. RDA/MARC Working Group Established. <<http://www.collectionscanada.gc.ca/jsc/rdamarcwg.html>>. [2009.9.25 인용].
- Karen Coyle and Diane Hillmann.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RDA): Cataloging Rules for the 20th Century. D-Lib Magazine. January/February 2007, Vol.13 No.1/2. <<http://www.dlib.org/dlib/january07/coyle/01coyle.html>>.
- DCMI/RDA Task Group Wiki. <<http://dublincore.org/dcmirdataskgroup/>>. [2009.9.25 인용].
- Using RDA with bibliographic and authority records. <<http://www.rda-jsc.org/docs/5chair14.pdf>>. [2009.9.25 인용].
- Changes to AACR2 Instructions. <<http://www.rda-jsc.org/docs/5sec7rev.pdf>>. [2009.9.25

인용].

Diane I. Hillmann, Getting Real with RDA.

〈<http://www.slideshare.net/smartbroad/getting-real-with-rda>〉. [2009.9.25 인용].

NSDL Registry. 〈<http://metadataregistry.org/>〉. [2009.9.25 인용].

Multiple languages and RDA.

〈<http://metadataregistry.org/blog/2009/03/09/multiple-languages-and-rda/>〉.

[2009.9.25 인용].

RDA/MARC Working Group 홈페이지.

〈<http://www.rda-jsc.org/rdamarcwg.html>〉. [2009.9.29 인용].

MARC 21 Format 2009 Changes to Accommodate RDA(Draft).

〈<http://www.loc.gov/marc/formatchanges-RDA.html>〉. [2009.9.29 인용].

Discovering Linked Data. Fiona Bradley takes a tour of Linked Data endeavors and explains how they can help us make library data easier for everyone to use, By Fiona Bradley -- netConnect, 4/15/2009.

〈<http://www.libraryjournal.com/article/CA6650835.html>〉. [2009.9.28 인용].